

## 貿易學科의 현황과 전망

玉 璠 鐘  
(明知大 貿易學科)

### 1. 머리말

무역학과의 설립 배경을 살펴 보자. 1960년 대부터 우리나라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輸出主導型 高度 經濟成長에 초점을 두고 부족한 內需市場을 벗어나 해외로의 外需市場 개척을 통해 새로운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경제 정책이 거국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당시의 대학에서는 商學科를 貿易學科로 개편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각 지방 대학에서도 新增設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外大와 成大에 貿易大學院이 설치되었고 貿易士 制度도 신설되어 무역학과의 붐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학과 및 인원의 대폭적인 신증설이 진행됨에 따라 1989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총 472개 학과 중 분교를 포함하여 모집정원에서는 두번째이며, 개설 학교 수에서는 다섯번째 큰 학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특유의 시대적·환경적 요구에 의해 商學科에서 교육하던 국내 및 국제상학 과정이 무역학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초기의 교과과정인 상학 이외에도 무역 이론을 기초보조 이론학문으로서 그리고 국제경영학을 응용보조 실천학문으로 포용해 왔다.

그런데 무역학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무역 실

무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당시의 긴박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제상학의 고유한 학문적 영역이 크게 좁혀지면서 國內 輸出入 節次法에 따른 수출·입 절차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무역 실무 이론이나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교과과정이 무역학과와 主敎科課程으로 정착되어 갔다. 따라서 무역학과와 독자적 학문 영역인 국제상학, 즉 무역 계약 및 무역 관습과 관련 상학인 무역 보험, 국제 운송, 국제 결제, 국제상사 중재 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근 상경계 학과에서조차 무역학의 학문적 독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때로는 무역학과 설치의 當爲性마저 부인하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그 명칭을 국제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로 통합하는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바로 무역학과가 독창적인 학문 영역을 정립하지 못하고 교과과정을 체계화 하지 못했으며, 무역학의 堡壘를 지켜야 할 교수 요원의 근시안적 시각과 학제학의 성격으로 인한 연구 분야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나 독자적 영역 문제 때문에 한국 무역학회가 1974년에 창설된 이후, 많은 선배 교수들께서는 무역학의 학문적 성격과 무역학과에서 양성해야 할 고급 인력의 교육 목표에 대해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논문도 21 세기를 맞이하는 국제 정보 산업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학과가 무역학과이며, 따라서 학문적인 체계도 이에 맞게 재정립시켜 국제상학, 국제경영, 무역이론을 삼각대로 묶는 학제학의 독특한 성격을 규정할 것은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1 세기를 지향하는 국제 정보 산업 사회에서 현재 해외 시장 환경과 국내 시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기업은 전면적으로 國際化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國際分業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은 무역학과에서만 교육시켜 배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향후 무역학과의 新增設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제적인 시장 환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영국, 일본, 대만 등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賦存資源이 부족하고 內需市場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기업을 해외로 진출시켜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人的 賦存資源을 최대한 교육시켜야 한다. 향후 21 세기를 향한 국제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은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인데, 이같은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상경계 학과 중에서는 국제상학을 중심으로 학제학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시키는 곳은 무역학과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동안 무역학과의 교과과정은 '60~'70 년대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무역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맞추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제 시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배출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2. 貿易學科의 學問的 性格

먼저 무역학과의 학문적 성격을 간단히 요약하면, 商學을 모체로 하고 무역 이론에서 국제 분업의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국제상학으로서

私企業의 外需活動과 국제 기업의 경영에 적용되는 實踐的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학의 발생 배경은 경제학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것은 상학이 古代 地中海 貿易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데 비해, 경제학은 산업자본주의가 먼저 생성된 영국에서 18 세기말 아담 스미스를 창시자로 한 고전학과 경제학에서 그 이론적인 바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商學은 고대 사회의 交易에서 시작되었고, 경제학은 산업자본주의가 생성된 18 세기말이며, 경영학은 미국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 정착된 20 세기초이기 때문에 상학이 가장 먼저 발전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학 가운데 국제상학인 무역학은 상거래 행위에 대한 商慣習이나 무역 계약 부문은 中世 後期부터 그 실천적 기법이나 법률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지만, 국제 무역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명은 國際分業에 대한 고전 이론, 근대 이론, 현대 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역학의 이론적인 바탕은 경제학의 생성 이후에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무역학은 현재 경제학, 경영학과 더불어 상경계 중 중요한 학문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역학은 본래 국내 상업뿐만 아니라 국제 상업인 국제 물품 매매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 학문이기 때문에 국제 상업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불가결한 학문으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제상학의 주요 교과목은 국제 물품 계약이나 국제 상관습이며, 매매 이행을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이 계약 이행에 수반하는 무역 보험, 국제 운송, 국제 결제, 국내 수출입 관련법, 국내 및 상대국의 通商法, 국제 상사 중재 등이 부수적인 교과과정으로 반드시 이수되어야 한다.

또한 1980 년대 이후 현재의 고도 산업 사회는 국제 정보 산업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이 국제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 활동도 물품 매매의 범위를 벗어나 공업 소유권을 위시한 기술 이전 매매, 국제 기업의 現地生産·물품 매매·재무 활동, 국제 금융 시장의 운용, 서비스 거래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학뿐 아니라 무역 이론, 국제 경영 이론, 국제 금융 시장론 등을 골고루 강의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학은 국제상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역학과에서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 통상인이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영학과 무역 이론을 적절히 안배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동시에 국제상학에서는 무역 계약과 상관습 그리고 보조 상학에 대한 교과과정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역학과에서는 國際人을 양성하기 위한 학문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인접 학과에서 학문적인 영역을 침해하거나 무역학의 학문적 성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속히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무역학과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교과과정상 고급 인력의 배출 목표도 분명히 한 이상 무엇보다도 먼저 무역학과에서 착수해야 할 일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期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체질화되었던 교과과정을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교육 목표도 무역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범주에서 벗어나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제 무역학과의 학문적 특성이 규명된 이상 무역학과의 명칭을 과거의 상학과로 변경하거나 또는 학제학의 성격 때문에 국제경영학과나 국제경제학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무역학과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역학과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의 양성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일본 대학의 경우에는 商學部 안에 무역 계약과 무역 관습(국제 물품 매매), 유통, 보험, 운송, 경영 관리(생산, 재무, 인사 및 노무, 회계, 조직, 마케팅, 정보 관리 등) 등의 전공 코스를 밝게 되어 있다. 그외 영국과 같이 상학 또는 무역학과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국제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코스

별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무역학의 뿌리는 영국이나 일본에서 찾을 수 있지만, 21 세기를 향한 무역학과와 학문적 체제나 교육 목표는 우리나라 대학에 설치된 무역학과에서 학문적 기준과 영역을 설정하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학과와 학문적 특성을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는 데 둔다면 향후 무역학과와 교과과정을 어떻게 확대·개편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과목은 당연히 무역학개론을 위시한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통계학, 회계학 등을 設講해야 하지만, 공통 과목으로서는 국제 정보 산업 사회화에 대비하여 무역 커뮤니케이션, 무역정보처리 시스템, 외국어 등의 정보와 관련된 과목이 신설 또는 확대·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역학과와 고유한 학문 분야인 국제상학 분야에서는 종래에 무역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강된 수출·입 절차에 관련된 각종 국내 무역 관계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무역 실무는 기초 이론으로서 저학년에서 선수 과목으로 축소하여 강의하며,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무역 계약과 무역 관습에 대해서는 英美法과 大陸法 그리고 국제 협약을 중심한 법률적 연구와 강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무역 계약의 이행상 필요한 무역 보험, 국제 운송, 국제 결제, 무역상사 경영, 국제상사 중재 등의 과목이 더욱 심도 깊게 강의됨으로써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실현시켜야 한다.

셋째, 무역학은 진술한 바 학제학의 성격 때문에 국제상학 이외에도 이론적 바탕을 보완하기 위해 무역이론, 무역사, 무역정책, 국제금융, 국제기구, 국제자원, 한국무역론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제 분업의 흐름과 각국의 통상 정책 및 세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역학과에서 반드시 학문적 체제와 연구를 통해 무역학의 일부분으로

서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학문은 바로 국제경영학과 국제금융시장론이다. 국제경영은 그 학문적 성격상 국제 기업의 경영 기법이기에 때문에 外需活動의 연장이란 점에서 기업의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경영학과에서 다룬 학문적 영역은 아니라고 보며, 국제금융시장론 역시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借款 및 債權發行 業務의 기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무역학과의 고유한 학문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異議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경영학과 국제금융시장론은 무역학과에서 연구·개발하여 기본 교과목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3. 貿易學科의 現況

#### 1) 學科 現況

무역학자가 우리나라 대학의 상관계 전공 학과의 하나로 처음 대학에 설치된 것이 1963년의 일이다. 전술한 바, 당시 우리나라는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채택한 對外指向의 經濟發展 戰略에 부응하여 문교당국은 종래의 상학과를 存廢한 가운데 무역학과의 신설을 허가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후 정부가 수출주도형 고도 경제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기존 상학과도 대부분 무역학과로 개편되는 동시에 다수 대학에서 무역학과의 新增設이 이어지면서 무역학과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와 더불어 경상계 대학의 중추적 학과의 하나로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물론 1963년 이전에도 전남대, 부산대, 서울대에서 이미 무역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학과는 국제상학을 전공하는 무역학과로 전면적인 개칭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1989년 현재 우리나라 전 대학의 무역학과 설치 상황을 살펴 보면 뒤의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 104개 4년제 대학(교육대학은 제외) 가운데서 무역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2/3인 66개 대학에 이르고 있으며, 연도별로 볼 때 1950년대에 3개 대학(1989년을 100으로 한 비율은 4.4%), 1960년대에 13

개 대학(19.1%), 1970년대에 38개교(55.9%), 1980년대에 14개 대학(20.6%)에서 무역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무역학과의 설치 상황을 살펴 보면, 국·공립 종합대학 12개교 중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11개 대학(92%)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1개 국립 단과대학 중 한국체육대, 여수수산대, 순천향대를 제외한 8개 대학(73%)에서 무역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49개 사립 종합대학교 중 37개 대학(76%)에 설치되어 있으며, 32개 사립 단과대학 중 12개 대학(38%)에 무역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국 76개 무역학과 설치 대학(10개分校 포함)의 입학 정원을 살펴 보면, 총 5,945명으로서 경상 계열 학과 가운데 경영학과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설 학교 수에서도 중 대학 학과 중 다섯번째 큰 학과로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무역학과는 畧의 팽창에 비해서 교과과정이나 연구 실적 그리고 교육 목표 등 質的 提高가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학과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가 대대적인 貿易 振興政策을 구사하면서 무역학과의 신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는 하였지만, 무역학과의 교육 목표와 교과과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대학은 학생 정원의 추가적인 증원과 학과의 신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기만 했지, 이에 대비한 충분한 교원 확보와 무역학의 특창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역학과의 교수 요원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서 전입되거나 兩學科에 들어가기 위한 임시 대기소로서 무역학과에 소속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상학 분야에서도 상학의 고유한 분야인 무역 계약 및 무역 관습, 무역 보험, 국제 운송, 국제 결제, 상사 중재, 각국의 통상법 및 국제 협약 등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역 실무라는 명칭하에 국내 무역 관계법을 기반으로 한 수출·입 절차나 기초 무역 상무 이론 정도를 교육시키는 데 급급했던

〈표 1〉 연도별 각 대학의 무역학과 설치 현황(1989년 현재)

연 도	국립 (공)대학	사립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	무역학과 설치학과 수(비율) <sup>1)</sup>	누 계 (비율) <sup>1)</sup>	비 고
1952	1				1(1.5)	1(1.5)	전남대
1953	1				1(1.5)	2(3.0)	부산대
1958	1				1(1.5)	3(4.5)	서울대 <sup>2)</sup>
1960							
1961							
1962	1	2			3(4.4)	6(8.9)	전북대, 전북대, 명지대
1963		2			2(2.9)	8(11.8)	한양대, 한국외대
1964		1			1(1.5)	9(13.3)	홍익대
1965							
1966		2			2(2.9)	11(16.2)	서강대 <sup>2)</sup> , 상공관학
1967							
1968		2			2(2.9)	13(19.1)	동국대, 중앙대
1969		3			3(4.4)	16(23.5)	단국대, 숙명여대, 경기대
1970		1			1(1.5)	17(25.0)	고려대
1971		3			3(4.4)	20(29.4)	경남대, 숭실대, 영남대
1972		2			2(2.9)	22(32.3)	국민대, 조선대
1973		1			1(1.5)	23(33.8)	인하대
1974		1		1	2(2.9)	25(36.7)	계명대, 한성대
1975							
1976		1			1(1.5)	26(38.3)	청주대
1977		2			2(2.9)	28(41.2)	전주대, 관동대
1978	2	3	2	2	9(13.2)	37(54.4)	경북대, 충북대, 동아대, 창원대, 공주사범대, 국제대, 목원대, 세종대, 부산여대
1979	3	7	5	2	17(25.0)	54(79.4)	강원대, 제주대, 충남대, 동의대, 경성대, 원 광대, 효성여대, 대구대, 군산대, 안동대, 부 산수산대, 강릉대, 목포대, 한남대, 동덕여대, 상지대, 인천대
1980	2	1			3(4.4)	57(83.8)	경상대, 서울서립대, 광운대
1981		1		1	2(2.9)	59(86.7)	경희대, 한신대
1982		2		2	4(5.9)	63(92.6)	부산외국어대, 수원대, 호남대, 강원대
1983			1	1	2(2.9)	65(95.5)	한국해양대, 대전대
1984				1	1(1.5)	66(97.0)	배재대
1985				2	2(2.9)	68(99.9)	순천향대, 인제대
설치비학 수	11	37	8	12	68	68	
1989년 현재설치 대학수	10	36	8	12	66	66	
전국대학 수	12	49	11	32	104	104	

자료 : 문교부 통계자료, 1989.

주) 1) 사사오입

2) 1984년 국제경제학과로 개칭

3) 1980년 폐과

것이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 따라 인근 상경계 학과나 외부에서는 무역학과를 무역 실무자를 양성하는 학과로 오인하게 되었으며, 무역학과와 교과목도 경제학과 경영학 그리고 무역 실무 기초 이론 정도를 배워 나가는 학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다시 말해 무역학과가 量的 팽창에 비해 質的 운영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 2) 卒業生의 社會進出

그동안 무역학과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을 살펴 보면, 그 진로가 대부분 內需 및 外需企業體의 취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금융업을 위시한 서비스 산업 또는 교원으로 진출하고 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는 무역 업체(무역 상사 및 오퍼상과 수출품 생산 업체 등)를 비롯하여 금융업체, 운송업체, 유통업체, 서비스업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까지 무역학과에서는 현실에 부응하여 각 진출 분야에 따라 무역 실무나 무역 이론 그리고 국제 경영 등을 적당히 섞어서 기초적인 실무 위주의 전공 과목을 設講하거나 현장 실습 및 견학 등을 통해 무역 실무 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따라서 초기에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수출 주도형 고도 성장기에는 무역학과에서 배출된 고급 인력이 외수 업체를 중심한 기업체에 진출하여 보여준 업무 성과는 크게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들의 우수한 능력은 우리나라의 무역 진흥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시장 환경의 변화와 국제 정보 산업 사회로의 이행기에 들어와서 무역학과는 교과과정을 무역 실무자의 양성이라는 좁은 범주를 벗어나 국제 통상인이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무역학과와 존재와 역할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기업체에 인식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역학과 자체내의 자구적인 노력 또한 미진하였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최근까지 기업체의 인식 부족 때문에 新入社員의 채용 공고시 전공 분야 표시에서 무역학과명을 공시하지 않거나 무역학 과목을 전공 과

목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역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채용 시험시 기업체에서 경제학 이론이나 경영학 원론 등 인접 과목을 응시 과목으로 공고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 二重 부담을 안고 있으며, 설령 기업체가 무역학 과목을 출제하더라도 국제상학의 학문적 체제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수출·입 절차나 기초 무역 실무를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과에서는 무역학과와 교과과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질적으로 정리하여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학의 학문적 성격과 인력의 배출 목적을 무역 업계의 종사자에게 알릴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대학원 진학은 1980년대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대학원 진학과 외국 유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외국 유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학문적 편향 현상을 초래하여 균형적인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상학의 연구가 극히 부진하며, 무역 계약은 법학과에서 계약법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기타 보험이나 운송은 독자적인 코스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학과와 학문적 체제에 맞추어 우수한 교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일본에서 국제상학을 연구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경영학에서도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 요원은 무역학과에서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내 대학원에서도 현재 무역학의 학문적 체제가 정립된다면 우수한 교수 요원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특수대학원인 무역대학원에의 진학은 비상경제 출신이 많이 입학하고 있는데, 무역대학원 교과과정도 학부의 교과과정 개편에 준하여 교육 목표를 단순한 무역 실무자를 배출한다는 범주를 넘어서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 4. 貿易學科의 敎科課程

##### 1) 敎科課程의 現況

여기서는 履修學點의 現況, 교양 과목과 자유 선택 과목의 개설 現況, 전공 과목의 개설 現況을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이수 학점의 現況을 살펴 보면 現행 문교부가 지정한 최소 졸업 이수 학점은 140 학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분야별 이수 학점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무역학과는 대학마다 교과과정이 상이하고 이수 분야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순수 교양 과목의 평균 이수 학점은 45 학점으로서 최소 졸업 이수 학점인 140 학점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공 교양인 계열 기초 과목은 11 학점으로서 8%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교양 부분의 총 이수 학점은 평균 56 학점으로서 전체 이수 학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전공 부분의 평균 이수 학점은 58 학점으로서 전체의 42%를 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공 필수가 26 학점(18%), 전공 선택이 33 학점(24%)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일반 자유 선택 부문은 26 학점(18%)으로서 총 이수 학점의 60%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교양 과목을 위시하여 전공 부문(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과 일반 자유 선택의 비중이 대학에 따라 이수 학점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 대학의 특성과 교수진의 구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교양 과목과 자유 선택 과목의 개설 現況을 살펴 보면, 우선 여기서는 무역학과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제한하고 전공 교양인 계열 기초 과목을 각기 전공 분야에서 다룬다는 전체 조건하에 설명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양 과목은 전공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의 습득과 人的 人格의 陶冶,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설정된 대학교육의 필수 교양 부문이다. 따라서 교양 과목은 다양하고도 융통성 있게 개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양 과목 가운데 순수 교양 과목

의 필수 학점(평균 27%)이 선택 학점(평균 12%)을 초과함으로써 일률적이고 경직된 교과과정의 배정이라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양 과목의 선택이 고등학교의 교육과 중복된다든지 또는 총 최소 이수 학점 140 학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일반 자유 선택 과목은 학문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학과와 전공 과목을 이수하는 데 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또는 타학과 및 타계열의 전공을 필요상 이수하거나 교직에 뜻이 있는 학생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직 과목을 자율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자유 선택 과목도 교양 과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역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사 운영의 기법이 필요하다. 일반 자유 선택의 진정한 의미는 타계열과 타학과의 과정을 복수로 수강하는 학제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향후 동일 대학내에서 전면적인 강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전공 과목의 개설 現況을 '89년 무역학과 교과과정 연구 조사 과정에서 살펴 보면, 전국 31개 대학의 평균 개설 과목은 34개, 전공 분야는 대체로 8개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마다 큰 편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이 분야별로 비중을 두고 있어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 2) 敎科課程의 問題點

첫째, 履修學點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현재 최소 졸업 이수 학점이 140 학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학점으로는 무역학과에서 의도하는 국제 통상인이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서는 학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소 졸업 이수 학점은 150~160 학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학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분야별 이수 학점도 합리적인 적정 기준을 설정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한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대학내에서 선택 과목의 범위

를 확대함으로써 교과과정의 硬直性을 지양하는 동시에 全人的 교양을 습득케 하기 위해 복수 전공의 길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과정의 비중에서 볼 때, 교양 과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며, 교양 과목의 구성은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교과과정상 대학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교과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의 특수성이라기보다 교수진의 구성 요인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교수 요원의 구성을 학문의 체계에 따라 골고루 채용하고 연구 분야를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동일 교양 과목에 대해서도 대학마다 전공 분야별, 개설 학년별, 개설 학기별로 각기 상이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先修 과목과 後修 과목의 순서와 연계성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형편에 있다. 이같은 문제는 향후 무역학과의 학문적 체계가 정리되어 교과과정이 개편되면 전공에 맞추어 교양 과목의 교과과정을 교과 개편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공 과목상의 문제점은 사실상 본교의 핵심적 과제로서 향후 21 세기의 국제 정보 산업 사회를 맞이하여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1980 년대에 와서 무역 실무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가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배출한다는 새로운 목표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학문적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각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개편할 때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과정 모델 하나를 <표 2>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5. 貿易學科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 1) 當面課題

무역학과는 그 설립 배경, 학문적 성격, 교과과정의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무역학과의 학문적 성격의 재조명과 교

<표 2> 무역학과 교과과정의 모델

구분	교 과 목 명	
전공 기초 수	① 경제학 원론	④ 통계학 개론
	② 경영학 총론	⑤ 회계 원리
	③ 무역학 개론	
무역 이론	① 국제 무역 이론	⑤ 국제 자원론
	② 국제 금융 이론	⑥ 국제 기구론
	③ 무역 정책론	⑦ 한국 무역론
	④ 무역사	
국제 경영	① 국제 경영론	⑤ 국제 기업 환경론
	② 해외 투자론	⑥ 국제 경영 정책론
	③ 해외 시장 정보조사론	⑦ 국제 통상 전략론
	④ 국제 마케팅론	⑧ 국제 금융 시장론
국제 상학	① 무역 상무론	⑥ 국제 운송론
	② 무역 상관습론	⑦ 국제 결제론
	③ 무역 계약론	⑧ 무역 경영론
	④ 무역 관계법	⑨ 국제상사 중재론
	⑤ 무역 보험론	
기통 종과 응용	① 지역경제	③ 무역 커뮤니케이션
	② 무역학 연습	④ 무역정보관리

과과정의 개편 문제이다. 무역학과는 상학을 모체로 1960년대 당시의 시대적 요청인 무역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면서 국제상학 부문에서부터 학문적 성격이 좁혀지고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21 세기를 지향하는 1980 년대에 와서는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무역학과의 인력 배출 목표가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목표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내용을 학제학으로서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고 선택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역학의 학문적 특성을 국제상학, 국제경영, 무역이론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재편성하며, 특히 국제상학 분야에서는 종래의 국내 수출·입 절차나 기초 무역 실무교육에서 탈피하여 무역 계약 및 상관습, 통상법, 관련 상학(무역 보험, 국제 운송, 국제 결제, 상사중재 등)에의 교육과정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영학이나 국제금융시장론의 운용 기법 연구도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한다는 무



역학과의 교육 목적에 따라 반드시 무역학과의 독립적 학문 영역에 수용되어야 하며, 국제 정보 산업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학이나 기타 사회학을 무역학과 접목시키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 요원의 확대 개편과 연구 영역의 세분화가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현재 학제학의 성격 때문에 경제학, 경영학, 국제상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무역학과의 독창적인 교과과정이 정립되면 무역학의 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하며 무역학대에 소속된 소속감을 강하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역학과도 다른 상경계와 마찬가지로 교육 환경의 개선과 교육 시설 및 교재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 향후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교재라든지 기업에의 現場實習 그리고 정보 처리 교육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 2) 發展方向

일반적으로 대학의 학과별 특성화는 교육 제정의 효율적인 활용, 대학간의 역할 분담, 지방대학의 육성, 産學協同의 촉진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1974 년도부터 시행에 옮겨져 특성화 학과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으며, 1975 년부터는 大學院 교육의 강화가 시작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독창적 교육 목적의 설정이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5 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학과별 우월성의 추구, 자율성의 신장, 다양성의 조장, 효율성의 재고 등이 계속 연구되면서 무역학과도 이같은 범주내에서 학문적인 특성을 재정립해야 할 기

회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변화와 21 세기를 향한 국제 정보 산업 사회를 맞이하여 무역학과의 교육 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학과의 교육 목표는 무역 실무자의 배출이 아니고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는 데 둔다.

둘째, 교과과정은 고유의 학문 영역인 국제상학을 중심으로 국제 경영, 국제 금융 시장, 무역 이론 등을 교육 목표로 맞추어 재조정한다.

셋째, 무역학과는 汎世界人인 국제 통상 전문가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는 유일한 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상경계뿐 아니라 다른 社會科學系列 또는 정보 처리나 커뮤니케이션 등 廣域型的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복수 전공을 가능하게 하며, 이들 과정을 무역학과의 교과과정에 편입시켜야 한다.

넷째, 무역학과 고유 학문인 국제상학 교육에서는 종래의 무역 실무 기초 이론이나 국내 수출·입 절차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교과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무역 계약 및 무역 관습, 무역 보험, 국제 운송, 국제 결제, 국제상사 증재, 국제 및 각국의 통상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이를 강의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 시설과 교육 방법의 개선이다. 우선 교육 시설은 주입식 칠판 교육이나 교재 교육에서 탈피하여 최근에 전자 통신의 발전에 따른 최신 시청각 교재를 통해 살아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하며, 특히 국제 통상인이나 국제 기업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의 産學協同을 강화시켜 현장 실습이나 기업체의 운용 사례를 습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